

# 남원 생활환경 인증제 시행

### 시, 공공건물 등 장애인·고령자 접근 불편 해소·보행환경 대폭 개선

남원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 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남원시는 인증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이동하거나 접근하는데 있어 불편을 없애고 보행환경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건축물이나 도시의 유지·관

리 단계에서도 각종 이동편의시설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Barrier-Free)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생활환경인증제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이 개별 시설물, 구역, 도시를 접근·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하며, 공신력 있는 지정 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제도는 거리, 시설물 등에 장애인, 고령자 등이 접근하고 이동하

는데 불편이 없는 경우 이를 인증하는 제도이며, 인증기관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거리 및 시설물에 교통약자가 접근하고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경우 이를 Barrier-Free로 인증하는 것이다.

인증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이며, 수행기관으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다.

대상시설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고창 친환경 황토멜론 수출 시장 공략

### 군 8월 개최 '제27회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판매촉진 행사 등 계획

고창군이 친환경 멜론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선다.

군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농촌진흥청 3차년 탐과제 프로젝트 단지로 고창황토멜론연구회가 선정돼 황토멜론 탐과제 프로젝트 시범단지를 육성했다.



고창군이 친환경 멜론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선다.

여기에 이어 농촌진흥청과 함께 고창 황토멜론의 해외 소비자 기호에 맞는 수출 규격품 통일생산 기반을 구축해 고품질 수출 멜론 생산을 위해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단지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황토멜론은 생산에서 수출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기술지원과 수출 마케팅을 본격화해 수출시장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멜론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차별화된 수출 전략으로 해외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한편, 고창 황토멜론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에 특작과화원과 함께 1:1 농가별 현장 컨설팅을 통한 멜론 제품의 상향평준화를 통한 고품질 멜론을 생산해 홍콩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과채로 인식이 되어 2014년부터 홍콩 수출을 해 왔으며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를 지닌 홍콩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멜론 선물세트를 적극 홍보해 관심을 끌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임실군, 운암대교 일원 환경정화활동 실시

임실군 운암면은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섬진강 수변지역인 운암대교 일원에서 23일 환경정화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화활동은 운암면 직원과 육정호 지킴이로 구성된 자원봉사단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로변과 소공원에 버려진 쓰레기 수거는 물론

체면시설 주변 제조작업 등을 실시했다.

박현기 면장은 "운암면은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호반주변에 30km의 드라이브코스인 국사봉, 봉어섬 등 관광자원이 풍부해 연간 방문객이 3만여명에 달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쓰레기 가져가기 홍보 및 주기

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펼쳐 다시 찾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운암면은 육정호 순환도로를 비롯해 물안개길, 봉어섬, 국사봉 등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육정호 수변 지역에 조성된 소공원 개소와 쉼터 4개소를 중심으로 환경정리 및 사계절용 패랭이꽃을 식재해 나갈 계획이 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행복홀씨' 입양사업 협약

### 영우농동과...돌레길 환경정비

남원시는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정화활동을 통하여 깨끗한 남원을 만들고자 영우농동식품(주)와 '깨끗한남원 행복홀씨 입양사업' 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관내 자원봉사단체, 지역주민, 기업체 등이 쓰레기 수거, 꽃밭 가꾸기, 예초작업 등을 통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들어가는 민간주도의 사업이다.

남원시와 협약을 체결한 영우농동식품(주)는 지리산 돌레길 3코스 인월~산내 구간 8.3km를 입양받아 2018년 5월까지 2년 동안 정

기적으로 자율적인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한다.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영우농동식품에 쓰레기봉투, 장갑, 집게 등 청소에 필요한 기본 도구를 제공하고, 행복홀씨 입양안내포스터를 설치하여 참여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한편 남원시 환경과장은 남원청년회의소에 이어 영우농동식품과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남원시에 행복홀씨가 퍼져나가고 있다며 더 많은 단체와 기업들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남원 가꾸기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 남원시, 수도권 예비귀농귀촌 희망자 학교 운영

남원시가 지난 3월에 이어 수도권에 거주하는 예비 귀농귀촌 희망자 30명을 대상으로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2박 3일 동안 수도권 귀농귀촌학교를 운영하였다.

이번 교육은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정책, 귀농귀촌 계획서 작성하기, 선배 귀농인과의 만남, 선도농가 현장탐방 등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으로 진행되어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탐방은 지리산 자락에서 곤달비, 고사리를 재배하는 농가 방문을 시작으로 남원시 대표품목인 포도, 딸기농장 등을 견학하고, 장류 가공 농

가도 방문하여 작물 선택부터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교육생들은 남원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샬터를 현장 방문하여 조성준비부터 입주까지의 전 과정을 상세하게 듣고 소규모 샬터 지원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선배 귀농인과 그룹별 대화시간에는 귀농초기에 겪는 거주 및 영농문제, 지역민과 갈등 해소 방안 등을 귀농 사례 중심으로 얘기를 나누고 농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유영철 기자

# 고창군, 선진교통문화 정착 캠페인 전개

고창군이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23일 고창을 일원에서 열린 캠페인은 고창군, 고창경찰서, 고창교육지원청,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무단횡단·불법주정차·신호위반·과속운전·음주운전 안하기, 보행 시 인도로 걷기, 우측통행하기 등 7가지 약속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군민들과 함께 다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

# 남원농협, 농협발전상생협 개최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조내수)는 23일 시지부 3층 회의실에서 관내농협의 상호협력력을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남원시 농협발전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남원시지부를 비롯하여 남원농협, 춘향골농협, 운봉농협, 지리산농협, 남원축협, 남원원협, 전북지리산농협, 남원권역보존센터 등 관내농협 상생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의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상생위원이 중심이 되어 농번기 농촌일손을 덜어 드리기 위한 농촌일손돕기 실시, 관내농협 임직원 한마음 상생행사 개최 및 지도·경제·산용 등 각 사업분야에서 상생협력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활동계획도 협의했다.

조내수 지부장은 "계통농협 직간 소통과 상생협력력을 통해 농업인과 고객의 애로사항을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상생협력회 활성화를 통해 농협과 지역이 함께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하절기 특별 위생점검

임실군은 하절기를 맞아 관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에 나섰다.

이번 위생점검은 기온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식품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조리장정결, 위생관리, 식재료 보관상태 등 식중독 예방 및 기초위생부분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해 위생적인 조리실내 등을 지도·점검하는 한편 업소관계자와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등 안전사고예방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식중독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실천해 식중독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식품접객업소 내 조리장에서 사용하는 칼, 도마, 조리기구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유발 세균검사를 위해 수거를 실시하며, 행정처분 위주의 점검을 지양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한 급식 위생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함께 가꾸는 농촌 운동'

남원시는 사매면 서도리 혼불권역 일원에서 시청직원과 유관기관, 체험마을협의회, 지역주민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함께 가꾸는 농촌 운동'을 발대식을 시작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을 조성 본격 추진하고 있다.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은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축사주변의 악취 문제를 민관이 함께 해결해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환경을 만들어가는 운동으로 남원시와 한국농어촌공사남원지사, NH농협은행, 지역농협 등 유관기관과 읍면사회단체, 남원시 농촌체험마을협의회, 남원시 귀농귀촌재능나눔기부단 등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매월 정례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에서는 지난 12일 발대식에 이어 17일 아영면 일원에서 아영면사무소, 시청 농정과, 아영면 사회단체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을 펼쳤다. 이날 면소재지 주변 폐비닐, 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도로변 정비 등을 실시하였으며 가로변 화단에 꽃 심기 등을 추진하였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 4월에 함께 가꾸는 농촌 운동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농촌환경 개선 운동으로 정착시켜가고자 남원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고 16개 읍면에도 애향회,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협의회, 농업인단체 등이 참여한 읍면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